

“중국 견제 위해 아프간 주둔 필요”

트럼프 대통령, 바그람 공군기지 재사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미군 주둔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이 혼란스러운 철군 과정 속에서 기지를 탈레반에 넘긴 지 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영국 국민 방문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종식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바그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속보라고 표현했지만, 과거에도 이미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악관과 국방부가 실제로 복귀 계획을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



▲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인계한 바그람 공군기지 사진=AP/연합뉴스

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탈레반과 협상해 미군 철수 조건을 마련했으며, 실제 철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진

행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 붕괴,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인한 미군 13명과 민간인 170여 명 사망, 공항 탈출 소동 등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존엄과 힘을 갖고 철수했어야 했다” 며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이번에도 “푸틴은 미국 지도력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며 아프간 철군 실패가 러시아를 고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바그람을 계속 보유했어야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 중 하나를 아무 대가 없이 내줬다” 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 탈레반 정부와 바그람 기지 재주둔을 논의 중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위기, 국제적

고립, 내부 분열, 극단주의 단체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레반이 미국과 거래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탈레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특히 강조했다. “중국 핵무기 제조 시설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탈레반은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인질 협상과 같은 제한적인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탈레반이 납치한 미국인을 석방했고, 최근에는 양측이 일부 수감자 교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앙사령부와 국방부는 바그람 재주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미시시피서 흑인 학생 나무에 목 맨 채 발견

과거 인종폭력 연상, 학교에 잇단 협박 수업 전면 취소

미시시피주 델타 주립대학에서 한 흑인 학생이 교내 나무에 목을 맨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집 크로우’ 시대의 인종 폭력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 캠퍼스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1세의 흑인 학생 데마트라비온(트레이) 리드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대학 피클볼 코트 인근 나무에 목을 맨 채 교직원에게 의해 발견됐다. 볼리바 카운티 검시국은 예비 보고서에서 외상이나 공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델타 주립대학 다니얼 에니스 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레이가 발견된 방식은 공동체와 주, 전국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고 말했다. 델타 주립대학은 사건 발생 직후 수업을 전면 취소했고, 학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자 경비 인력을 증원했다.

같은 날, 사건 현장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빅스버그에서는 백인 남성 코리 주카티스(35)가 나무에 목을 맨 채 발견됐다.

두 사건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BI 잭슨 지부는 “필요시 연방 수사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리드의 유족은 민권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를 선임해 독자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어야 한다” 며 독립적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경찰이 확보한 영상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NAACP도 성명을 내고 “예비 조사에

서 ‘외부 공격 흔적 없음’ 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우리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맨 적이 없다” 며 조사 결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1955년 흑인 소년 에밋 킬이 백인 남성에게 납치·살해된 뒤 탈려해치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과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통증관리
- 링거투여
- 당뇨케어, 투석관리
- 호흡 요법
- 인공 호흡기 치료
- 기관 절개관 관리

한국 프로그램

-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선택
- 한국 예배
- 한국 액티비티
- 아트와 게임

의료 서비스

- * 피검사 / 엑스레이
- * 약국
- * 치과, 검안과
- * 심리치료 / 정신과 상담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 HMO / 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한국어 상담: 임정애 **(562)714-7792**

(909)621-4751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